

동북아역사 리포트



Vol. 52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2023년 11월 15일

중국의 백두산 문화 유적 및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시도

문상명_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2. 백두산 주변 '창바이산 문화론' 개발 유적지
 - 1) 너인고성
 - 2) 바오마성 유적지
 - 3) 류딩산 문화명승지
 - 4) 창바이산 만주족문화박물관
3. 맺음말

중국의 백두산 문화 유적 및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시도

문상명_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경제 건설 측면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역사와 문화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는 백두산의 역사와 문화에 주목하여 백두산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정리했는데, 목표는 백두산 지역의 문화를 한족(漢族) 문화로 흡수하는 것이었다.

지린사범학원고적연구소(吉林師範學院古籍研究所)는 1986년부터 2013년까지 83권에 달하는 『장백총서(長白總書)』(길림문화출판사)를 편찬해 백두산 관련 고고, 민족, 민속, 문학 등의 자료를 집대성했다. 1994년 12월에 발간된 『장백산문화논설(長白山文化論說)』에서 처음으로 ‘창바이산¹ 문화론(長白山文化論)’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창바이산 문화론’의 핵심은 백두산을 포함한 동북 지역은 중국 역대 왕조의 관할지이며, 고조선을 비롯한 고구려와 발해의 후손을 한족(漢族)으로 융합한다는 것이다. 현재 창바이산 문화론은 지린성을 넘어 중국 동북 지역 전체 경제 개발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

중국은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창바이산 풍경구’를 비롯한 너인고성, ‘창바이산 만주족문화박물관’, 바오마성 유적지, 류딩산 문화명승지 등 만주족 거주지를 비롯해 만주족의 ‘창바이산 제사처’와 만주족 박물관 등을 ‘창바이산 문화 공간’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백두산의 관광지화와 지역 경제 촉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백두산 주변에서 ‘창바이산 문화론’을 내세운 유적지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중국이 백두산 문화 유적 및 내러티브를 중국화하려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 창바이산(長白山)은 중국에서 부르는 백두산 명칭이다.

2. 백두산 주변 ‘창바이산 문화론’ 개발 유적지

백두산을 중심으로 북쪽과 서쪽으로 확산한 ‘창바이산 문화론’ 개발 유적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백두산 주변 ‘창바이산 문화론’ 개발 유적지 분포도(필자가 구글 지도 위에 간략하게 표시한 것임)

1) 너인고성 (B)

중국은 ‘창바이산 문화’를 만주족 고유문화로 보기보다는 중화민족다원일체론(中華民族多元一體論) 시각에서 보려 한다. 그리고 백두산 영역을 확대해 발해사 유적과도 연계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은 백두산에서 발원해 북쪽으로 흐르는 송화강 최상류에 있는 너인고성(纳殷古城)이다.

청 태조 누르하치는 1593년부터 1597년까지 백두산 주변에 분산돼 있던 여러 부족을 힘으로 제압하고 만주 일대를 통일했는데, 지린성 바이산시(白山市)에 있는 너인고성은 그중 한 곳이었다. 또한 과거 툴루다오송화강 일대에는 건주여진 8대 부족 가운데 한 부족이 자리 잡았는데, 그 후손이 수십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지금까지 독특한 문화유산과 민족 관습을 지켜오고 있다. 따라서 백두산을 만주족 청조 선조의 발상지(滿清先祖发祥之地)로, 창바이산 너인 문화(長白山纳殷文化)를 백두산 천지 남쪽 툴루다오송화강(头道松花江, 만주어로 너인강) 유역의 만주족 발상지로 부각하고 있다.

2018년 국가 4A급 명승지²로 개장한 너인고성은 고대 여진족 산림촌락을 재현한 유일한 곳이다. 전

2 중국은 유적지를 중요도에 따라 A에서 단계별로 최고 등급인 5A급까지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시 공간에는 고대 여진족의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누르하치 동상, ‘창바이산신 사당’ 등이 설치되어 있다. 중국은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강 최상류에서 터전을 이루고 살았다는 너인 문화를 의도적으로 부각해 백두산이 ‘만주족의 산’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2023년 현재 너인고성 내에 숙박 시설까지 갖추고, 만주족 민속촌 테마파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여러 전시 가운데 ‘제조전(祭祖殿)’이 가장 이색적으로, 이곳에는 기자(箕子), 숙신씨(肅愼氏), 한무제(漢武帝)를 비롯해 만주족 시조 부쿠리용순(布庫里雍順),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努爾哈赤) 등의 동상을 줄지어 세워놓았다. 광개토태왕(好太王) 동상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인물 소개는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로도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역대 왕조가 백두산을 관할했고, 한반도를 넘어 일본에까지 위력을 미쳤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기복신앙의 대상으로 백두산신 제단을 여러 곳에 세웠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너인고성이 있는 장소이다. 이 성은 진장(錦江), 만장(漫江)의 회합처와 토투다오 송화강 원류가 만나는 곳에 있는데, 이는 백두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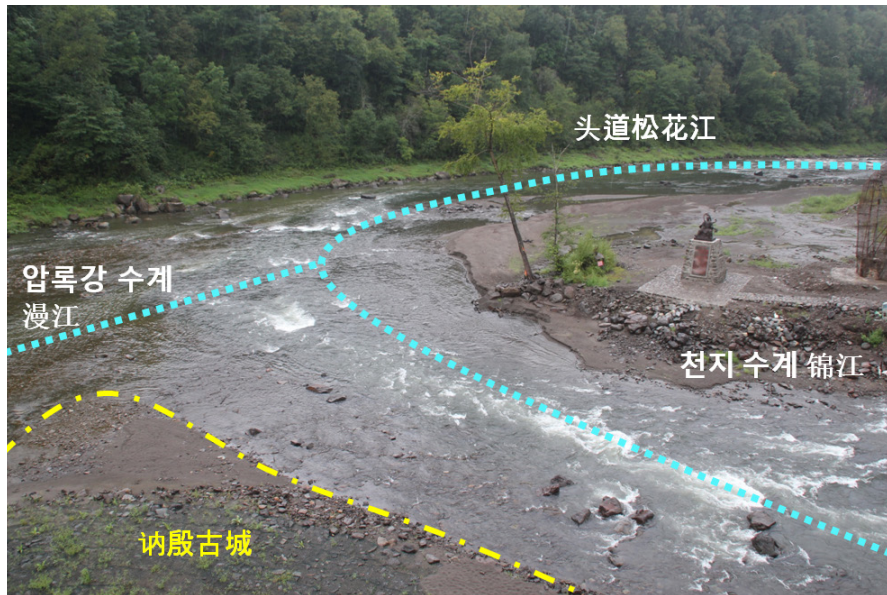


기복신앙의 백두산신(2023년 8월 25일 © 문상명)



너인고성의 한복 체험 장소(2023년 8월 25일 © 문상명)





너인고성과 세 강의 회합(2018년 8월 20일 © 문상명)

발원하는 송화강 최상류가 여진족의 발상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이같이 백두산 지역이 만주족 발상지이고, 그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너인고성을 조성했다. 그리고 입구에는 한복을 전시해 체험하고 사진도 촬영할 수 있게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만주족 복식 체험은 없었다.

2) 바오마성 유적지 (D)

지린성 안투현에 있는 바오마성 유적지(宝马城遗址)는 백두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다. 바오마성 건축 축선은 백두산 주봉과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있는데, 이는 중국이 백두산에 제사를 지냈다는 장소로 위치적 특성을 부각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시기(1115-1234) ‘창바이산 신묘(長白山神廟)’ 유적이라 선전하고 있다. 지린대학교 변강고고연구센터(边疆考古研究中心)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해, 2017년까지 188,000㎡를 조사하고 3,498㎡의 면적을 발굴했다. 이후 이곳은 중국 10대 신규 고고 발굴지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필자는 이곳을 2018년 방문했는데, 여전히 발굴 중이었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다. 유적지 사방에 울타리를 치고 CCTV를 여러 곳에 설치하는 등 경계가 삼엄했으며, 특히 한국인을 경계했다. 당시 어렵게 발굴 현장 몇 곳을 살필 수 있었는데, 잡초가 무성하고 일부 구간만 땅을 판 것 같은



바오마성 유적 표지석과 유적지 발굴 현장(2018년 8월 20일 © 문상명)

흔적이 있고 비닐로 덮여 있었다. 유적지 바로 옆에는 현장사무소가 있었고, ‘금대 창바이산 신묘 유적지 사무실’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2023년 현재 모습도 같다.

3) 류딩산 문화명승지 (E)

바오마성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진 지린성 둔화시(敦化市)에는 여진족의 발상지 류딩산 문화명승지(六鼎山文化景区)가 있다. 우리에게도 발해 초기 왕실 고분군으로 유명해서, 발해 3대 문왕 대흙무의 둘째 딸 정혜공주의 돌방무덤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52km에 달하는 국가 5A급 관광지이자 성급(省級) 관광개발 지역으로 불교·발해·청조 문화 등의 전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은 류딩산 문화명승지가 발해 왕조의 탄생지이자 청 황실의 발상지이며, 만주족 시조의 탄생지 오도리성이 위치한 곳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2011년 9월에는 청조 문화원(清朝文化園)을 조성하고, 만주족 조상들을 모신 대규모 사당 청조사(淸祖祠)를 세우기까지 했다. 더욱이 2층 규모의 ‘창바이산 신사(長白山神祠)’를 만들어 만주족이 백두산에 제사 지냈다는 것을 재현하고 있다.

그리고 만주족 문헌이나 민간 풍속 자료를 전시해 만주족의 뿌리가 백두산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매년 청 황실의 후예와 만주족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을 행하고, ‘창바이산 신사’에서 백두산 망제를 지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것은 백두산이 만주족의 발상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선전하고, 류딩산이 만주족 역사 문화의 현장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이 발해사를 고구려사나 한국사와 분리해 ‘숙신-읍루-물



창바이산 신사와 제단(2018년 8월 20일 © 문상명)

길-말갈-여진족-만주족'으로 이어지는 중국 사로 편입하려고 백두산을 활용한 것이다. 류딩산 문화명승지에는 불교 문화와 관련한 사찰과 불상 등도 조성되어 있다. 청조사 내부에는 여진족 시조 부쿠리용순부터 청조 마지막 황제 푸이에 이르기까지 금과 청 역대 왕들의 동상이 3m 이상 되는 높이로 세워져 있다. 벽면에는 부쿠리용순의 탄생 신화부터 청의 건국과 역사가 그려져 있다. 특히 부쿠리용순의 강인한 모습을 표현한 동상과 그의 탄생 설화의 배경으로 '창바이산'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띈다.

'창바이산 신사'에는 제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청조의 역대 황제는 모두 왕조의 발상지인 창바이산에 가서 산제를 지냈는데, 옹정제 11년(1733)부터는 길이 멀고 험하여 직접 가지 않고 매해 봄과 가을에 창바이산 방향으로 산제를 지냈다. 둔화는 창바이산 동북쪽에 있어 망제를 지내기에 가장 좋은 지점이다. 이에 오늘날 2011년 중추제(9월 15일)부터 여기에 창바이산 망제전을 설치하고 매해 산제를 지낸다.

역사서에는 둔화에서 망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없다. 그런데도 중국은 예전부터 있던 것처럼 망제전을 설치했다.

발굴 중인 창바이산 신묘 유적과 바오마성 유적지의 위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두산과 바오마성, 류딩산 문화명승지는 모두 북쪽으로 일직선상에 있다. 중국이 '창바이산 문화론'을 역사적으로 입증하고자 적합한 장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4) 창바이산 만주족문화박물관 (C)

중국이 '창바이산 문화론'을 홍보하고자 가장 먼저 조성한 곳이 2008년 10월 바이산시에 개관한 창바이산 만주족문화박물관(長白山滿族文化博物館)이다. 백두산과 가장 가까운 성급 박물관으로, 백두산 서



만주족박물관의 창바이산 무형문화유산 전시 중 한복과 전통 한국 춤(2023년 8월 26일 © 문상명)

쪽으로 너인고성과 일직선상에 있다. 창바이산에서 만주족이 탄생하고 문화가 발아했다는 것을 주제로 만주족의 지역적 특색과 문화를 전시하고 있는데, 주로 백두산에서 탄생한 만주족의 문화만을 강조하는 분위기이다.

박물관은 백두산이 만주족의 성산이자 발상지이고, 발해도 말갈족이 세운 왕조라는 것을 강조한다. 박물관 입구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창바이산은) 중화(中華) 10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유라시아 대륙 동단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중략) 만주족의 발상지이고 중국 북방 민족이 대대로 번성하고 생식(生息)할 수 있도록 해준 가원(家園)이다. (후략)

전시 구성은 ‘창바이산, 창바이산 만주족 신산 숭배, 창바이산 만주족 역사 원류, 창바이산 만주족 생활관습, 창바이산 만주족 문화 예술’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창바이산 송화석 및 송화 벼락, 창바이산 특산물 표본, 창바이산 인삼, 창바이산 미술, 창바이산 예술’ 등의 소전시가 있다. 전시 키워드는 ‘창바이산과 만주족’이며 백두산에서 만주족이 탄생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는 ‘창바이산 무형문화유산’ 전시가 추가됐는데, 특히 우리 문화를 백두산의 무형문화유산에 포함해 중국화하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다. 우리 전통의 된장 문화를 ‘고려 장 담그기’로 소개하면서



‘장백현의 음식 문화’라고 기술했다. 채삼(採蔘) 역시 중화민족의 전통이라 하고, 지금도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압록강 뗏목까지 중국 문화로 설명한다. 다만 강강술래와 한복은 장백현 조선족의 춤과 복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백두산 생활문화권에서 대대로 내려온 우리 민족 문화를 ‘창바이산의 무형문화유산’으로 포장해 중국 것으로 전유화하고 있는 것이다.

3. 뗏음말

앞의 〈백두산 주변 ‘창바이산 문화론’ 개발 유적지 분포도〉를 보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서쪽의 B-C, 북쪽의 D-E로 이어지는 ‘창바이산 문화론’ 유적과 박물관, 전시관 등의 위치는 마치 백두산을 중심으로 부채꼴로 확산하는 듯한 모습이다.

최근 중국은 ‘중국 국가문물국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 일명 14.5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해국 상경용천부 유적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 예비 항목’에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신청 요건인 유적의 탁월한 보편 가치에 부합하도록 ning안시(寧安市), 보하진(渤海鎮) 등 주변 촌락과의 발전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상경성 유적은 1961년 중국 국무원에서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공포한 이후 2020~2040년까지 ‘발해국 상경용천부 유적지 보호 총체 계획(渤海國上京龍泉府遺址保護總體規劃)’에 맞춰 보존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사업 목적은 ‘유적의 문화 가치에 대한 전체적인 보호 실현’이라 명시하고 있지만, 인근의 주

요 발해 유적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를 통해 이 지역을 ‘발해 문화권’의 중요한 역사 문화 경관이자 중국 동북 지역의 중요한 인문 경관 및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의도다.

즉 ‘발해 문화권’ 개발은 ‘백두산-바오마성-류딩산 문화풍경구’로 이어지는 ‘창바이산 문화권’과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둔화에서 무단강(牡丹江)을 따라 연결하려는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한다. 백두산과 발해 유적을 중국 고대사로 편입하려는 큰 그림이 보인다.



‘창바이산’ 발해 문화권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참고문헌 |

- 유네스코세계유산(<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s/6190/>)
- 바이두(<https://baike.baidu.com>)
- 吉林省长白山保护开发区管理委员会(<http://cbs.jl.gov.cn/>)
- 문상명, 2021, 「조선후기 <天下圖>에 담긴 白頭山 인식」, 『만주연구』 32
- 문상명, 2022, 「중국의 백두산 공정과 대응」, 『동북아역사논총』 76
- 문상명, 2022, 「중국의 ‘창바이산 문화론’과 백두산 전유화(專有化)」, 『동북아역사논총』 78
- 박정민, 2016, 「청조 발상지 악다리성(鄂多理城) 논의에 대한 재검토-‘둔화설’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2
- 윤취탁, 2019, 「중국에서의 ‘滿洲(長白山) 主人論의 表象化 작업과 의미」, 『중국사연구』 119

| 문상명 |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역사지리를 전공했다. 최근 연구로는 『조선총독부의 간도 시찰 보고서: 압록강·두만강 유역 『國境地方視察復命書』(2023), 「중국의 ‘창바이산 문화론’과 백두산 전유화(專有化)」(『동북아역사논총』 78, 2022), 「중국의 백두산 공정과 대응」(『동북아역사논총』 76, 2022)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보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제41호**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 제42호**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 제43호**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 제44호** 한국인의 여름 나기, 삼계탕의 연원과 발달
- 제45호** 베트남 역사와 대중(對中) 관계
- 제46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과 한중일 삼국
- 제47호**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역사와 국가 정체성
- 제48호** 16세기 한중 관계와 예의지교(禮義之交)
- 제49호** 관동대지진 100주년 -관청 기록의 봉인과 '민중 폭력'의 재검증
- 제50호** '한중호조'의 아름다운 기억 -1920년대 한중 관계의 역사 속에서 상호협력(互助)의 교훈을 찾는다
- 제51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배경 톺아 읽기